

산림청, 디엠지(DMZ) 접경지역 내 '평화도시' 구축 의제 발굴 모색

등록 2021.11.23 17:35:40

기사내용 요약

23일 민간·학계·정부 '탄소중립 평화도시 구축 학술토론회'
최병암 청장 "북한 산림복구는 시급히 추진돼야"

[대전=뉴스시스] 김양수 기자 =



[대전=뉴스시스] 23일 최병암 산림청장이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산림을 활용한 탄소중립 평화도시 공공경영(거버넌스) 구축 학술토론회'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산림청은 23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산림을 활용한 탄소중립 평화도시 공공경영(거버넌스) 구축 학술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정부, 학계, 민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한반도 기후변화 공동대응 방법으로 디엠지(DMZ) 접경지역에 산림기반 탄소중립 평화도시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실행방안을 모색키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최병암 산림청장을 비롯해 통일부, (사)한국디엠지(DMZ)평화생명동산, 통일평화연구원, 서울대, 경희대, 강원대, 국민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한스자이델재단 등 20여 개 기관·단체가 참여했으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다.

학술토론회는 ▲산림을 통한 평화시대 구상 및 남북산림협력 전망 ▲접경과 평화도시 ▲남북협력과 지속가능한 발전 ▲한반도 탄소중립 스마트 산림모델 등을 주제로 한 발표,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산림청은 이번 학술토론회서 남북산림협력을 통한 한반도 온실가스 감축,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기여키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 산림을 활용한 탄소중립 평화도시 조성 및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최병암 산림청장은 환영사에서 "디엠지 접경지역의 70%를 차지하는 산림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숲을 통한 한반도 온실가스 감축 및 지자체간 협력 의제(아젠다)를 발굴해 제안하는 데 이번 학술토론회의 의미가 있다"며 "북한의 산림복구는 운명공동체인 한반도의 생태계를 회복시키고 기후위기에 공동대응키 위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